

대형 참사 ‘아찔’ 조선대병원 화재…수술 ‘잠정 중단’

불 난지 10분 만에 자체 진화 ‘다행’
전기콘센트서 발화…원인 규명 아직
일 평균 20~40건…환자 피해 불가피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화재는 신속하게 진화돼 단순 연기 흡입 외 사상자는 없었지만,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시설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병원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광주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신고 접수 약 10분 만인 오전 8시20분께 조선대병원 측에 의해 완진됐다.

불이 비교적 빨리 잡혔고 경보가 제때 울려 화재 진압과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30여명을 제외하곤 다친 사람은 없었다.

화재 당시 다른 곳에서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 2명도 무사히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마친 후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발화 지점은 수술실 내 멀티 콘센트 형식의 의료용 전원공급장치로 특정됐다. 다만, 환선과 누전 등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화재 전 해당 수술실에선



14일 오전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불은 약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으나 환자와 의료진 등이 대피하고 일부는 연기를 들이마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

수술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병원은 모든 수술 일정을 중단하고 병

원 전기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화재 피해를 입은 3층을 중심으로 소독 등 뒤처리 작업에

작수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술을 재

개할 계획이라는 게 조선대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조선대병원의 수술실은 15개이며 이날 예정된 수술 27건(27명)은 모두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날 수술을 위해 최소 전날부터 입원 중이었던 나머지 환자 중 일부는 퇴원했고, 몇몇은 병원에 더 머물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하루에 적게는 20건, 많게는 40건까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의 사태 수습이 길어질 수록 예정된 일정 모두 출몰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번 화재 여파로 수술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수술 예정이라는 A 환자의 보호자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이번 일정도 어렵게 잡았는데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라 걱정”이라며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오매불망 수술날만 기다려 왔던 환자와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불이 난 7번 외 다른 수술실들은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병원도 최대한 빠른 정상화가 목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 37억 투자 사기 일당 ‘중형’

2023년 11월~작년 3월…58명 상대

회사 대표 등 3명 징역 5년6개월~7년

회사 대표까지 가담해 수십억대 ‘비상장주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6개월,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2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을

납부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주변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장할 것이라고 속인 회사 법인의 대표였다. 다른 이들은 유명 법인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주식 양도 계약 체결 담당을 맡으며 B씨의 범행을 도왔다.

법인 대표까지 가담하며 총책, 자금 세탁·계약 담당 등의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행해진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와 주택 구

입, 자녀 결혼 등을 위해 모았던 돈을 잃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 대한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증거로 이 사건의 기소까지 이어진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질책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에 비춰 불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책임과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길 권장했다. /안재영 기자

술자리서 여성에게 재떨이 던진 20대 집유

술자리에서 학벌과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다 시비가 붙자 재떨이를 집어 던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20대·여)씨에

게 재떨이를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학벌과 부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설이 오가던 중 A씨는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 기자

광주세관, 마약 밀수·유통 5명 구속 송치

내국인 2명·외국인 3명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5명을 적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태국에서 온 화물 중 대마초 약 1kg이 담긴 녹차 통을 발견했다.

이에 세관은 해당 화물이 감시 속에 유통되도록 한 뒤 우편물을 최종 수취한 A(30)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32)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세관은 수사를 확대해 B씨도 체포했으며 그가 보관 중이던 케타민 221g, 필로폰 1.1g을 압수했다.

이들은 태국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올해 1~3월 30여 차례에 걸쳐 592g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서울·인천 지역의 주택가와 등산로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해 왔다.

이 밖에도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 3건을 적발했고 베트남인 2명·태국인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결국 수사망에 포착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서 7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여수에서 홀로 발갈이 작업을 하던 70대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1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5분께 여수시 한 밭에서 A(70대)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밭갈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전선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